

# 미숙한 경선 관리 흥행에 찬물

## ■ 민주당 컷오프 발표 혼신

정당 경선 사상 최초로 컷오프제를 도입, 본 경선에서의 국민적 흥행 물이에 나섰던 민주당이 미숙한 경선 관리로 오히려 전국적인 망신살을 샀다.

유령 선거인단 논란에 이어 국민경선인단 응답률이 50%에도 못 미치는가 하면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득표율과 득표수가 번복되고 4위와 5위의 순위가 뒤바뀌는 등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 본 경선의 흥행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합민주당 국민경선위는 지난 5일 저녁 7시에 본 경선에 진입한 후보 5인의 득표율 산정작업에 착수했으며 1·2위를 차지한 손학규, 정동영 후보가 1.28%(240표)의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4시간 만에 다시 뒤바뀌었다.

5명의 후보 지지를 합산이 100%를 넘어 서자 재집계에 들어가 이날 밤 11시30분, 순차 후보 간 격차가 4천667표 대 4천613표로 54표 차(0.29%)로 좁혀지고 4위와 5위의 순서를 공식으로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

## 득표율·득표수 번복, 4·5위 순위 바뀌어

## 책임론 대두... 경선 불복 사태는 없을 듯



대통합민주당 국민경선위 이인영 기획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경선위 대책회의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인은 예비 경선 집계 결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해 국회로 되돌아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오류는 일반인 여론조사 2천400명표와 선거인단 4천714명표 50 대 50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일반인 여론조사 가중치가 과대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단순한 실수 차이를 떠나 경선관리 체계 전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선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예비 경선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합 민주당이 급조되면서 확고한 리더십과 경선관리 체계 등 기본적인 정당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당 운영 체제가 계속된다면 경선 규칙 등과 관련, 당이 후보들 입김에 휘둘리면서 본 경선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합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 인사는 "예비 경선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본 경선도 탄력을 받을 것인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둘러싼 혼선과 후폭풍에도 추미애, 김두관, 신기남, 천정배 등 컷오프 탈락 후보들은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선 불복 사태로까지 번지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17대 대선 범여 경선 현장

### 손학규 "서민 자녀 10만명 해외 연수"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예비후보는 6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국비를 지원, 매년 2만명씩 5년간 모두 10만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자녀 10만 주몽 해외연수 계획'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연간 가구소득 3천만원 이하 서민층 자녀 중 초등학교 5~6학년

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며,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3대 7 비율로 배정해 농촌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출신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연수 지역별로는 영어권·유럽권 1만명, 중국 등 아시아권 6천명, 일본 2천명, 기타지역 2천명 등이다.

### 이해찬 "손학규 대세론 소멸했다"

○대통합민주당 이해찬 예비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에서 보도돼 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공약을 곧 취소할 것이며 취소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운하에 빠져 익사할 것'과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 후보가 대운하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지만 국

그는 이어 "참여정부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후보 지지도를 보면 탈락자까지 포함해 40%에 육박한다"며 "그 지지세력이 비교적 자발성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면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시민 "대통령 4년 연임제 추진"

○대통합민주당 유시민 예비후보는 6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대통합 민주당 경남도당 개편대회에 참석,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공약을 곧 취소할 것이며 취소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운하에 빠져 익사할 것"과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 후보가 대운하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지만 국

민의 입장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 孫·鄭 초박빙 1·2위... 친노표李 쏠림

## ■ 민주당 컷오프 표 분석

5일 발표된 대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결과는 초박빙 선두 경쟁과 친노 주자표의 이해찬 집중으로 요약된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실시된 범여권 후보 선호도 및 지지도 조사에서 상위 5위권을 차지했던 후보들이 그대로 컷을 통과해 큰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1, 2위를 차지한 손학규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득표 차이는 54표(0.29% 포인트), 당초 언론사 여론조사보다는 격차가 줄어들 것인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 격차가 너무 작아 양 캠프 모두 놀라는 반응이다. 이 결과대로라면 정 후보의 추격세가 상당했으며 역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손 후보 측은 이번 여론조사가 통상의 여론조사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순위표의 향배와 쪽집기, 배제투표 등이 결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의 선전은 2순위 표 득표

## 대통합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별 득표수

순위	득표수 (선거인단/일반 여론조사)	득표율 (%)
1 손학규	4,667(2,207/2,460)	24.75
2 정동영	4,613(2,339/2,274)	24.46
3 이해찬	2,709(1,339/1,370)	14.37
4 유시민	1,913(1,057/856)	10.14
5 한명숙	1,776(761/1,015)	9.42

\*총 유효응답 9,428 총 유효표수 18,866

## 2순위 표에서 鄭 후보 선전

## 親盧 단일화면 본 경선 변수

에서 다른 후보를 월등히 앞지른 결과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광주지역 한 지방의원은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당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분석해보면 '그래도 호남 출신인데'라며 2순위로 정 후보를 찍은 경우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즉 손 후보 측 주장대로라면 호남의 선거인단 선정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1인 2표제가 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줬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해찬 후보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친노(親盧) 후보군 중 상당한 표차로 선두를 차지해 향후 친노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 유시민 후보의 상승세가 부각되자 친노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나아가 친노후보 3명의 득표율을 합하면 33.93%로 손·정 두 후보가 각각 얻은 표를 앞지르는 만큼 단일화가 성사돼 '친노 대비노'의 맞대결 양상으로 전환될 경우 본경선의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본경선 흥행에 '다크호스'로 꼽혔던 추미애 후보는 1천663표(8.82%)로 6위에 그쳐 민주당을 탈락, 뒤늦게 합류한 후박주 자로서는 열세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 후보가 컷을 통과했으면 민주당의 조순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카드였는데 아쉽게 됐다"며 본경선의 흥행성 저하를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 "신당은 당신들만의 정치 각자 표결집에 여념없어"

강금실 비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6일 대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 "신당은 '당신들의 경선'을 극복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신당이 만들어지고 예비경선이 치러지기까지 두달간 신당의 행보는 말 그대로 '당신들만의 정치'였다"며 "과거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했던 바로 그 '당신들의 정치', 그 테두리에 여전히 갇혀있는 것 아닌가"라며 "당신들이"고 말했다.

그는 "왜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인지 실력력이 없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복을 담은 미래를 국민에게 선사하겠다는 것인지 메시지도 없다"며 "여전히 각자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정치 메카니즘 속에서 표결집에 여념이 없는 모습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친노-비노 구도라는 말 자체가 과거를 표상할 뿐, 주자들의 미래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5년전 최초의 민주적 경선에 기대를 실어준 국민의 감동은 사라지고 없다. 경선의 형식만 갖고서는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다시 불러모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조순형 '3有·3無론'으로 호남 표심잡기

○민주당 조순형 대선 경선후보가 6일 전주를 시작으로 순천, 여수, 광주, 나주를 방문하는 등 사흘간의 호남 방문에 들어갔다.

그는 이 기간에 민생현장 방문, 당원

및 지역인사 오·만찬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3有(연륜, 정통성, 도덕성) 3無(부정부패, 정치적 부패, 가식)'론을 내세워 바닥 표심을 약하게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 김민석 "경선일정 원상회복 안하면 불참"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후보 순회경선 일정 변경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 "(당은) 일반적인 경선 일정 변경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당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본경선 후보 등록마감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경선 불참 가능성

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당 지도부 노선의 보수화와 함께 당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당내 경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분할 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 : (062) 226-6300  
FAX : (062) 943-2244

**고시원 매매**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 입니다.  
● 5층건물 매대기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기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기8억5천 (용자 4억 포함)  
● 7층건물 매대기9억5천 (용자 3억9천 포함)  
● 4층 6층건물 매대기 20억 (용자 6억7천 포함)  
♣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오.  
H.P:011-604-5239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매신)이다. 마술을 통해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성인에게는 개인적 강자됨 및 창의성으로 활영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용기를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이다.  
♣ 교/집/대/상/하  
•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입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후환)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용을 화두로 더오르는 16년(강제)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료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 2층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추석에 가족친지들이 모인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공연회, 교회행사, 이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과 정 : 주간반(10:00~13:50) 이근반(19:00~22:30)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내 용 :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교수진 : 한영호·박한수 교수진(저지직강)  
●기 타 : 이근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방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일)모집중 (개강 9월 8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과 정 :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수시)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기 타 : 훈련수로 후 개인별 환급(노동부)  
●노동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7·9급 공무원**  
= 전직종 완전대비 =  
전·일반형성·교육행정직 [합격대비]  
남 문제풀이반 강 (개강 9월 3일 5주완성)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s.co.kr  
www.hanbitgos.co.kr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급 공무원**  
개별맞춤형, 교육행정, 사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법부직원,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국관리, 기술직  
79급 공무원 이쁜반 첫진도 100%  
전남일형-교육문제풀이 100%  
11월 1일 시험 대비  
11월 1일 시험 대비  
11월 1일 시험 대비  
**한빛공무원학원**  
11월 1일 시험 대비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전직종 첫진도=사면예약수준)